

4주차 문학 - 현대시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품은 빛을 그려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독서와 문학이 격주로 금요일 10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 팔로우하고 좋은 글 보세요!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국어 모의고사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1인 연구소입니다.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 공유도 그 활동의 일부입니다.

현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무료 모의고사 배포, EBS 자료 공유, 문항 공급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가 발간한 '단지하프모의고사'는 수능의 기조와 난이도를 동시에 잡은 모의고사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직 국어강사께서 '추론력과 적용력을 키우기에 탁월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문항들의 품질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하나, 지문의 조사 하나까지도 고심해 문제를 만들며, 꼼꼼한 검토진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에 더욱 만전을 기합니다.

이번 '매주 23수특 평가원 형식 N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학습에 활용하시고 저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에 대해 아가셨으면 합니다. 입시에서의 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단지하프모의고사 구매하기 ↓



협업, 문항 공급은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로 문의 바랍니다.

제 1 교시

4주차 문학 - 현대시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보습: 쟁기, 극쟁이 등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삼 모양의 쇠조각.

(나)

돌각담에 머루 송이 깔하니 익고
자갈밭에 아즈카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별바른 골짜기이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멧 집 되지 않는 골안은
모두 터알*에 김장감이 퍼지고
뜨락에 잡곡 난가리가 쌓여서

어니 세월에 뷔일 듯한 집은 뵈이지 않았다
㉣ 나는 자포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 낮 기울은 날을 햇빛 장글장글*한 뒷마루에 걸어앉아서
지난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長津)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쭈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즈런한 백성들
도 다 제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 백석, 「산곡-함주시초5」 -

*잠풍하니: 잔풍(殘風)하니.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터알: 집의 울안에 있는 작은 밭.

*남길동: 저고리 소매부리에 이어서 대는 남색의 천.

*장글장글: 바람이 없는 날에 해가 살을 지질 듯이 조금 따갑게 계속 내리찍는 모양.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에게 특정 공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시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공간에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가)는 일제 강점기 집과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조선인의 정한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의 바람을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현실의 삶에 지쳐 있던 시인이 함주 지역을 유랑한 체험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한겨울을 나기 위한 특정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답답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집을 잃고 떠돌며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국권 상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세가 된 조선인들의 정한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자칫 가늘은 길’을 ‘나는 나아가리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로군.
- ③ (나)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한 것은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가)에서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나)에서 ‘이 골안’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가)에서 ‘별빛이 아득임’과 (나)에서 ‘날이 어서 추워져서 쪽국화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화자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로군.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② ㉡은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소망이 조만간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 것이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5.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어를 통해 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옛 맹세'의 '굳고 빛나든' 이미지가 '차디찬'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향기로운'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어부엌습니다'에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접속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모두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② (나)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 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삼백예순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노력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슬픔'이 '새 희망'으로, (나)의 화자는 '내 보람'이 '설움'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나)의 '아직 기둥리고 있을 테요'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腸)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걷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처음 이 시가 발표된 잡지에는 '정정(情情)히'로 되어 있으나 이를 오식으로 보고 '암암히'로 교정한 초판본 시집의 표기에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상기는 「육사시집(1946)」 초판본에 따라 표기한 것임.)

(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씩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축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보여 주고 있다.

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혼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낸다.
- ③ ㉢: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
- ④ ㉣: 어릴 때의 동무들이 남아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낀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 ⑤ ㉤: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와 윤동주는 방(房)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 이육사는 (가)에서 좁은 ‘골방’ 안에 있는 화자가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관심을 넓혀 가며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방에 고립되고 협소한 공간이 아닌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윤동주는 (나)에서 어둡고 고립된 방을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시상 전개에 따라 방은 이전보다 밝아지는데, 이는 자아를 성찰하며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① (가)에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② (가)에서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다고 표현한 것과 (나)에서 ‘육 첩 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③ (가)에서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를, (나)에서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에서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 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걷’을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낸 것이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하나둘 스러지고

㉡ 귀축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 우련 붙어라.

㉢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 나의 영혼을 붙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 플라타너스,

㉡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상화한다. (가)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유발한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숭고한 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 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하이얀 미담이가 / 우련 붉어라.’는 떨어지는 꽃 앞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가)에서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는 꽃이 지는 모습이 화자의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느끼게 된 서글픔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린다.’는 넉넉한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한 것이군.
- ④ (나)에서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플라타너스의 자세를 본받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군.
- ⑤ (나)에서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동반자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군.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은 산을 유정물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통해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옮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은 플라타너스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에는 플라타너스와의 인연이 언젠가 단절될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山)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

(나)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 그리운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 오늘도 보이지 않네

모낸 논 가득 개구리들 울어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젠가, 아 언젠가는 /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㉔저문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

1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15.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다.
- ② ㉒: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공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㉓: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의인법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이 강조되고 있다.

16. (가)의 그대와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대’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촉발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위안하는 대상이다.
- ② ‘그대’는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다.
- ③ ‘그대’는 화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그 소재는 알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대상이다.
- ④ ‘그대’는 화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다.
- ⑤ ‘그대’는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를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그 사람」은 각각 일제 강점기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작가가 느끼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상징적인 시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자연물과 시·공간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산새’와 ‘구름’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형상화 하기 위해 활용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꽃처럼’과 ‘남산 꽃 같은’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종식할 대상을 형상화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이 밤’과 (나)의 ‘칙칙한 어둠’은 두 작품의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오직’, ‘한갓’에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의 ‘언젠가, 아 언젠가’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호오이 호오이’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보릿대 들불’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 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 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넷물 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 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뉘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 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넛랑 고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누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넷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허식: 실속이 없이 겉만 꾸밈.

*콩바심: 거두어들인 콩을 두드리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나)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 무슨 이 집의 연척(緣戚)*이라도 되는 양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보다.

구렁 난 지붕에는

풀 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먼지 낀 뒷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印) 찍혔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 물이끼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이걸 가지곤

마른 강변에 텐 소 냐뽀듯

암만 바시대도

필경 먹고살 도리가 없어

별똥지기 천수답(天水畓)과 골아실 텃논이며

논배미 밭다랑이 다 버려둔 채

지게 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회지라야 한다고……

오쟁이* 툭툭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게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찢을 테지만

한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 주는 양

저 혼자 재재거리다 말고 간다.

㉤ 찌는 말복(末伏) 철 저녁 셋때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 김관식, 「폐가에 부쳐」 -

*연척: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썩은새: 오래되어 썩은 이엉.

*오쟁이: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을 가리킴.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자를 호명하여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1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 ② ㉡은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믿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보여 준다.
- ③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집과 화자의 인연이 오래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현재형 진술을 통해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은 계절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집을 보며 화자가 느낀 정서를 보여 준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시에서 고향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과거와 달리 암울하게 변해 버린 세계로 그려지기도 한다. (가)에서 고향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존재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가)의 고향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세계로 표현된다. 한편 (나)에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로 인해 황폐해진 공간이다. 몰락한 고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도시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자 현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곳으로 나타난다.

- ① (가)에서 '고향'을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수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때 지어 찹추'는 것을 '돌아가'야 할 '풍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으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외딴집'의 '주인'이 '소식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고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환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넷물 가'를 '구슬'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을, (나)에서 '지붕'을 '풀 버섯'이 자라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나)

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②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활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대상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는 후각적 심상으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2. <보기>의 ㉠, ㉡와 관련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산업화·근대화의 폐해를 그린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비둘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비둘기'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되는 자연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또 ㉡'비둘기'를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을 형상화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물질만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 ① ㉠로 볼 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함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로 볼 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친다는 것은 자연을 위협하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로 볼 때,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는 것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도시 변두리 주민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로 볼 때,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 앉아 /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로 볼 때, '사랑과 평화의 새'인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낳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겠군.

2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나)에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길의 상징성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인생과 관련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① ㉠은 실패의 경험들과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믿는 이들이다.
- ② ㉡은 인생 전체로 볼 때,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 ③ ㉢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닌 이들이다.
- ⑤ ㉡은 ㉢과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양한 세상 경험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쫓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뚝**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나)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은 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뚝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5. (가)와 (나)의 **뚝**이 지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이 변화하도록 촉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유한성에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상태에 따라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성부의 「누룩」과 정희성의 「얼은 강을 건너며」는 모두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희생, 연대 의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누룩」이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과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민중의 자기희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와 「풀잎에도 운다」는 민중이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엄동설한」과 (나)의 「얼은 물」은 모두 민중이 핍박받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덩달아서」와 (나)의 「또한」은 모두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민중의 수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냄새」가 「퍼지」는 것과 (나)의 「청청한 / 소리가 난」 것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언제나 안개가 짙은 /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 토끼 같은 사람들
안개의 나라에 산다
- 김광규, 「안개의 나라」 -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굴복한 과거의 상황을, ㉡은 시련을 극복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 ② ㉠은 연약함을 느끼게 된 원인을, ㉡은 낙관적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을 보여 준다.
- ③ ㉠은 자연과 일체화되고 싶은 마음을, ㉡은 자연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 ④ ㉠은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를, ㉡은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⑤ ㉠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대응을, ㉡은 현실을 알기에 그로부터 도출해 낸 대응을 보여 준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때로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는 바다를 나는 나비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깨달으며 느꼈던 비애감과 허탈함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안개가 낀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상황과 이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판단했다고 표현한 것은, 근대 문명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지식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흰나비'를 '서글픈'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근대화 된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조국의 현실에서 근대화의 냉혹함을 깨달은 지식인들의 비애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안개의 나라'는 '언제나 안개가 짙'다고 표현한 것은, 엄격한 통제로 진실을 감추는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안개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의 귀'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냈을 때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터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댄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3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문학은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글로 형상화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표현하려 한 추상적 관념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할머니와 화자가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나)에서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작품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려는 추상적 관념이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 ① (가)에서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있다’며 힘을 주어 참깨를 내려친다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② (가)에서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며 할머니가 ‘나’를 꾸중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③ (나)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나)에서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운명처럼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⑤ (나)에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32.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젊은’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연이어’는 ‘한 번’으로 표현되는 화자의 성급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 ③ (나)에서 ‘천천히’는 ‘조용히’와 더불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출한다.
- ④ (나)에서 ‘호젓한’은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자세를 나타낸다.
- ⑤ (나)에서 ‘온종일’은 ‘울렁이며’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 떠나간 지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① 내 피의 달력으론 십 년 되었다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 넣는 일이다

옛날 옛날 적
그 사람 되어 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잇는 일이다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② 그래서 숨 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잇는다는 일이다

- 문정희, 「이별 이후」 -

(나)

너를 기다리다가
㉠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 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 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 정호승, 「강변역에서」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전적인 시간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너’와의 이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 ‘너’와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 이별 후에도 ‘너’를 향해 지속되는 화자의 사랑과 고통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④ ㉣: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 사랑했던 ‘너’와 재회해야 한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35. (가)의 화자의 입장에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의 모습이 인생의 여러 사건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것
- ② 지나가 버린 사랑일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서 추억이 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것
- ③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도 역시 기다림이라는 것
- ④ 삶과 일상은 언제나 지속되며 이별의 아픔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 간다는 것
- ⑤ 사랑도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처럼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정희의 「이별 이후」와 정호승의 「강변역에서」는 모두 남녀 간의 이별을 소재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이별한 화자의 내밀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별한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별에 대응하는 상이한 양상과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네가 없는데도’, ‘언젠가’와 같이 이별 이후의 시간에 이별한 사람이 잊혀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과 같은 표현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열흘’, ‘십 년’과 같은 시간을 중심으로, (나)는 ‘첫눈 내리는 강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너와 내가’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나)의 화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의 화자는 ‘잊는 일’, ‘잊는다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의 화자는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이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조로: 포르투갈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나)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3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문을 활용하여, (나)는 의문문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는 시적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조되는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의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빗대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38.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영향을 주는 초월적 존재가 머무는 공간이다.
- ② ㉡은 ㉠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인간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에서 화자가 만난 인간의 특성이 형성된 공간이다.
- ⑤ ㉣은 ㉡과 ㉢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39. <보기>는 선생님이 안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보아야 할’ 것, 또는 ‘본’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을 보아야 할 것으로 언급하며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경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본 사람들의 외면에 대한 인상을 드러낸 후, 그 속에 감추어진 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 (나)를 감상해 볼까요?

- ① (가)에서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을 때’는, 화자가 변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걸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에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

2023학년도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 정답지

4주차 문학 - 현대시

1	①	2	⑤	3	③	4	①	5	⑤
6	②	7	③	8	④	9	⑤	10	⑤
11	⑤	12	④	13	⑤	14	④	15	④
16	⑤	17	⑤	18	⑤	19	⑤	20	④
21	①	22	③	23	①	24	②	25	②
26	④	27	④	28	⑤	29	⑤	30	④
31	⑤	32	⑤	33	③	35	②	35	④
36	④	37	②	38	④	39	④		

2023학년도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은 정답지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해설은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혹은 EBSi 수능특강 강의를 참고하세요.